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8호 [루게 제23250호] 주제99 (2010)년 10월 25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묘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

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

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묘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24일에 진정되

였다.

화환의 명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이 10일부터 12일
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타스통신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새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을 돌아보시고 갖
입사한 예술인들의 가정을 방문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
로동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예술인들은 대중을 당적책임을
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사상
전선의 미더운 초병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
하시였다고 전하였다.

라고도 통신하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선로
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851군

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보
시였다. 그이께서는 일당백군인들의
훈련을 보시고 모든 군부대들이
이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
공도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사
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킬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
하시고 감사를 주시였으며 인
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
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
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영웅적
조선인민군은 당과 수령, 조국
과 인민을 위함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육탄격
사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들
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장구

하고도 간고한 투쟁속에서 억
척같이 단련된 이 강철의 정예
대로, 무적의 대군을 가지고있
기에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
이며 조선로동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
성원들과 훈련에 참가한 군부
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건
설된 국립연극극장을 예술인
들의 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
고, 당창건 65돐에 즈음
하여 진행된 현수선 10월
을약회》를 관람하시신 소식,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보신
소식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

사설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과 중국인민은 조중
친선이 전례없이 강화되는 격동적인
시기에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
전 6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은 피
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과 현대성의 힘있는 과시로
서 나라들이 친선관계의 산모범으로
빛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형제적인 중국인민해방군
장병들과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며 중국인민지
원군 용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
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깊은 감회속에 지
난 조국해방전쟁기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세운 위훈과 공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반제혁명
투쟁역사와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빛나
게 아로새겨져있다.

우리 인민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새 조국건설로 돌입하였던 1950
년 6월 미제는 전조선반도를 자기
의 지배하에 넣으며 나아가서 중국
대륙과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야망
에 불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남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는 창건전지 2년도 안되는 청
춘한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집어삼
키기 위해 방대한 무력을 조선전선
에 투입하여 인류전쟁역사에 있어보
지 못한 가장 야만적인 살육과 파괴
를 일삼았다.

미제의 횡포무도한 무력침공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였다.
남강도 미제침략군들과 싸워 조국을
수호하고 자주적인민으로 사느냐 아니
면 제국주의의 쇠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전의 시각이 우리 인민
앞에 닥쳐왔다.

은 나라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침략자들을 반대
하는 피의 결사전을 벌이고있을 때
중국당 정부는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
치밑에 수많은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
들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다. 중
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은 전투적의에
넘쳐 《중국인민지원군》을 힘차게
부리며 압록강을 건너 조선전선으로
달려나왔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은
공공의 원수를 반대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에 대한 귀중한 정치, 군사
적원조였으며 숭고한 국제주의정신

의 발현이었다. 중국인민지원군 용
사들은 전쟁기간 자기 고향과 자기
조국을 지키싸우는 심정으로 우리
인민군대와 한전호속에서 어깨걸고
적들과 피의 결사전을 벌리였다. 중
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은 적들의 총포
탄이 우박치는 불비속에서도 추호의
주저와 중요도 없이 무비의 희생성
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영웅
하게 싸웠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영웅적인 항전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
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는 중국인민
지원군 용사들이 흘린 피가 스며들어
그들의 고귀한 위훈과 넋이 깃들어
있다. 전쟁기간 우리 군대와 인민과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은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이야기
를 수많은 꽃피웠다.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무비의 희
생성과 고결한 투쟁정신, 동지적애
심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순결
한 도덕의리와 협조정신을 그대로 보
여주었다.

역사에 기록된 중국인민지원군의 조
선전선참전은 혁명적인민들의 반제자
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
하며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혈연적
우애를 증진하는 위대한 투쟁의
대를 흔튼히 하고 세계 진보적력량의
단결과 현대성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공헌으로 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중국인민지
원군 용사들이 발휘한 전투적의와 고
상한 협조정신은 조중친선관계의 강
화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지원군 용
사들의 고귀한 위훈과 아름다운 소행
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역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전통적인 조중
친선관계는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뒷받침해주고있으며 조선반도와 동북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
정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
습니다.》

조선과 중국은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름방이다. 조중 두 나
라 인민들은 일제부패 공동의 원수
인 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파국
까지 싸우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친선의 정과 혈연적우애를 두터이

하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은 반제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호상 사십
없는 지원을 주었다. 전통적인 조중
친선은 역사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
며 세기와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공
고발전하고있다.

두 나라 로세대혁명가들이 물려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 인민과 중국인
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인 조중친
선관계는 오늘 두 나라 령도자들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
난 5월에 이어 8월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시어 동북지방을 돌아보시면서
조중친선의 뉴대를 보다 흔튼히 하고
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자욱을 남기
시였다. 존경하는 호금동지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 멀리 장춘에까지 내려
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구진히 환대하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오랜 전통
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은 역사의 풍
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서 세
일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두 당, 두 나라사이
의 친선협조관계를 사회주의리념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중친선발전을 중시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
마진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축하
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
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고 화기에
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
며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혈연
적우애와 친선의 정을 더욱 깊이 하
시였다.

조중 두 나라사이의 호상 배양과 협
조, 교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날로 풍채 발전하는 조중친선협
조관계는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두 나
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뒷받침해
주고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
련해주고있다. 조중친선의 강화발전
은 두 나라 인민들을 고무격려하며 기
쁘게 해주고있다.

오늘 중국인민은 존경하는 호금동
지께서 조선로동당의 령
도밑에 과학발전정책을 펼쳐주시
고있는 불꽃이며 영원할것이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에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세운 위
훈과 공적은 조중친선의 역사와 더불어
같이 전해질것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창조와 비약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라남탄광기계련합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10월

6일까지 년간계획

을 102.4%로

넘쳐 수행하고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한 자

랑을 안고 계속 혁신의 한걸로

히차게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거둔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투

쟁을 과감하게 벌여 요즘 대상

설비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

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제힘을 믿고 자

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

켜나가야 하며 이미 마련되

어있는 경제집적력을 효과

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양상을 일으켜야 합니다.》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 혁신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지시사업
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갔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역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
휘하면서 설비의 고숙화, 정밀
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생산성이 좋은 현대적인 기계와
대상설비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
게 벌려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
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소에서는 뜻깊은 올해
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
기 위한 총진군의 발구름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당, 행정일군들이 들끓는 생산
현장에서 혁신적지시사업을 참신
하게 진행하고있으며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일터마다에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소제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
는 로의 연료소비량을 줄이면
서도 연료소비를 높여 소제생
산을 늘이고있다.

주강장작의 로동자, 기술자
들은 전기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운전작업을 기술규정과 표준조
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있다.
그리고 차지방 쇠물용제시간을

줄일수 있는 기술을 받아들여
쇠물생산량을 늘이고있다.

제편작업에서는 생산이 늘어나
는데 맞게 합리적인 작업방법으
로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제편
품을 계획된 날자에 어김없이 생
산보장하고있으며 유리한 작업조
건을 추동적으로 마련하고있다.

가공을 담당한 단위들에서도
남다라 새로운 혁신적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대상설비생산에서는 제편기
계장과 전양기계정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혁신의 앞
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
다. 이들은 김책제련합기업소
와 무산광산련합기업소, 김

평안남도 강원도의 목화련
합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은 봄내, 여름내 걸쳐 가운
목화를 열심히 따들이고 목화
를 모든 힘을 집중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들은 운반용기
들을 잘 준비하여 한송이의 목
화도 허실하지 않고 제때에 따
들이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합경남도의 목화전문련합농
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목화수확량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
련한 기쁨을 안고 목화따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동사실의 전투적과업을 결
사관철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
바지하려는 각지 목화생산자들
의 높은 열의로 하여 목화따기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평안남도 강원도의 목화련

합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은 봄내, 여름내 걸쳐 가운

목화를 열심히 따들이고 목화

를 모든 힘을 집중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들은 운반용기

들을 잘 준비하여 한송이의 목

화도 허실하지 않고 제때에 따

들이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합경남도의 목화전문련합농

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목화수확량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

련한 기쁨을 안고 목화따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동사실의 전투적과업을 결

사관철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

바지하려는 각지 목화생산자들

의 높은 열의로 하여 목화따기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대고조성 투쟁의 새 소서

언제공사 빠른 속도로 힘있게 추진

희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회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이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언
제건설에서 계속 혁신적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 9월부터 언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는 군인건설
자들은 요즘 콘크리트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고있다. 중
합된 자력에 의한 미탈에 따
이와 20일동안에만도 콘크리
트기설정은 전달 같은 시
기에 비하여 1.5배로 늘어나
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다.
그러하여 올해안으로 언제건설
을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얻어놓았다.

언제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이 자랑찬 성과는 군인건설자
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열매로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힘
찬 전군을 다그치고있는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격조
위훈창조로 힘있게 떠밀어주
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군
인건설자들은 언제콘크리트
기를 계획보다 앞당겨 해체
비상한 각도를 안고 공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용립언제건설을 맡은 군인
건설자들이 조선인민들의 돌격
속도를 앞당기도록 언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기세풍채 전
진해나가고있다.

이곳 지휘관들은 언제콘크리
트기에서 새 기록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으로 군인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참신한 정치사업
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이
파장에 혼합장들과 팔레트
들에서 설비가동률을 높여 타
속도를 높일수 있는 당보가 마
련되게 되었다.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속도
를 창조하여 선군조선의 기
상을 다시한번 만방에 높이
펼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
혁명령도의 길을 이여가시는

발휘하며 공사속도를 더욱 높
여 나가고있다. 그들은 능률적
이 시공방법을 받아들이고 림
제권을 발휘해서 현수타임을
하여 종전보다 콘크리트기를
훨씬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물동운반을 맡은 군인
건설자들은 골목제투와 운반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
고 불린기계들의 가동률을 최
대로 높여 콘크리트기를 최
급 이바지하고있다.

회천 2호발전소 언제건설을
맡은 조선인민내무군 정창복
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도 완공
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
해 언제건설에 총력량을 집중하
고있다.

선별, 혼합공정을 지켜준 군
인건설자들은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실어보내는 심정으로
설비들의 만가동에 힘입어 부
속품들을 원만히 갖추어놓고
매일 수천㎡의 혼합물을 원만
히 보장하고있다.

그러하여 최근 두달동안에
종전보다 매일 평균 수천㎡의
타임을 더 진행함으로써 언
제를 속속 쌓아올리는 놀라운 기
적을 창조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이곳 희천발
전소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
을 안아오려는 군인건설자들의
불타는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언제는 하루가 다르게 자
기의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각지 목화전문련합농장들에서

목화따기에 역량을 집중

각지 목화전문련합농장들에서

목화따기에 역량을 집중

각지 목화전문련합농장들에서

목화따기에 역량을 집중

각지 목화전문련합농장들에서

목화따기에 역량을 집중

조종친선의 년대기에 수놓아진 형제적우의와 전투적단결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싸운 준엄한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과 중국인민들은 3년동안이나 미제를 반대하여 같이 싸웠습니다. 조종 두 나라, 두 인민들은 이처럼 피로써 맺어진 형제적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이 되는 날이다.

조종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추억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력사의 날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공동의 원수 미제침략자들을 격멸하는 1950년대의 준엄한 싸움의 나날에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숭고한 희생성에 대하여 뜨겁게 돌이켜보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형제적중국인민에 대한 우의의 정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 참전은 뿌리깊은 조종친선의 력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이로새긴 력사적인 사건의 하나로써 그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나라와 인민들의 단결과 우의, 반제국주의투쟁에 대한 국제주의적지원의 산모범으로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잡고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

참전은 세계 《희강》을 떠벌이는 미제와 인류전쟁사상 류례가 없는 가벌치절한 싸움을 벌이고있던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가치에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에 파견하며 조선인민과 합동하여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고 승리를 쟁취할 때 대한 모택동동지의 명령에 따라 조선에 달려나온 지원군용사들은 수많은 전투들에서 조선인민군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무비의 용감성과 대적적용무의를 발휘하여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어느날 삼강평의 한 강도안에서는 리보성중대의 지원군용사들이 최후의 격전을 준비하고있었다. 식량도 물도 떨어져 입술마저 갈라져서 모두가 말조차 하기 힘들어하였다. 그러나 지원군용사들은 불이 켜지면 눈을 뜨고 돌출을 노리며 총창을 더욱 으르렁거리며 뛰어잡았다. 적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그들이 지니지 못한 정신만은 절대 꺾일 수 없었다.

《비굴하게 살기보다 국제주의 전사로 영예롭게 죽읍시다. 적들은 조선전우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할것을 결의하고 조국을 떠나 중국공산당의 아들들이여...》

끈질기게 투항을 설교하는 적들을 쓰아보며 리보성중대장이 한 말이다.

중국공산당의 아들! 《중국인민지원군가》를 높이 부르며 압록강을 건너던 때부터 지원군용사들이 한시도 잊지 않은것은 바로 이런 자각이었다. 조선전선출전시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명도를 받들며 조선인민군대의 용감한 전투적용무성을 따라배우며 조선인민의 풍속과 습관을 존중하며 조선의 산과 물, 한포기의 풀, 한그루의 나무도 사랑하고 보호하며 조선인민, 조선인민군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침략군대를 완전히, 철저히 격멸소탕할것이다.》라고 엄숙히 신성한 심장의 언약을 지켜 지원군용사들은 적들의 가스관에 질식되어 쓰러지면서도 굴함을 몰랐다.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싸우는 곳마다에서는 바로 그러한 신념의 대결, 피어린 격전이 벌어지고있었다.

어느날 밤 중국인민지원군의 한 구분대는 삼강평에서 멀리 떨어진 한 고지에 대한 공격전투를 진행하였다. 전투는 시작부터 가렬하였다. 4개의 적중기화염을 사발에 울부짖으며 미친듯이 불을 토하였다. 구분대의 공격을 가로막아나선 적중기화염들을 깨부수기 위하여 돌무더기 황계평, 오상양, 수덕양용사들이 결사전에 나섰다. 그들은 성난 사자마냥 화염으로 육박하였다. 그 과정에

두명의 용사들이 희생되었다. 황계평용사도 팔과 어깨에 심한 부상을 당하였다. 하지만 그는 전진을 멈추지 않았으며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었다. 조종인민의 공동의 원수 미제를 쳐부수는 3년간의 전쟁행사에서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세운 영웅적위훈은 상상할수만 아로써져있는것이 아니다.

장진호반과 청천강반, 391고지와 비류강 등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은 숭고한 희생정신과 국제주의적의리, 뜨거운 전우애를 발휘하였고 조종친선의 년대기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많은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과 국제주의렬사들을 배출하였다.

모안영, 황계평, 양군사, 라성교, 양련재, 구소운, 손점원, 리가만... 그들은 오늘날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전화의 나날 우리 인민은 지원군용사들을 자기의 친자처럼 여기고 사랑하였으며 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인민은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1952년 겨울 어느날 밤, 우리 농민들이 중국인민지원군 부상병들을 안전한 곳으로 후송하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쿠데처럼 밀려든 미제공공비

적들이 후송대렬을 향해 기총탄을 마구 퍼부었다. 그 순간 박제군농민은 빈개같이 몸을 날려 지원군부상병을 덮었다. 지원군병사는 구원되었으나 박제군농민은 지명상을 입었다. 하지만 숨을 거두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비껴있었다. 그 미소는 조종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정신도덕적힘입에 미제는 반드시 무를 꿇고야 말것이라고 소리높이 외치는 것만 같았다.

조종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은 이처럼 피를 함께 흘리고 생명도 함께 바치면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었으며 항일의 길에서 맺은 동지적단결과 전투적우의의 전통을 빛내어나갔다. 조종친선은 전화의 포연속에서 력사의 엄숙한 시련을 이겨내며 불멸의것으로 다져졌다.

지난 세기 두 나라로세대명도자들에게 의하여 마련되고 다져진 조종친선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호금도동지의 각별한 관심과 헌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나고 있다.

이 세상 모든것이 변화해도 공동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항일, 항미의 포연속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다져진 조종인민의 불멸의 전투적우의와 친선단결은 영원불멸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치곤

길 이 전 해 질 영 웅 적 위 훈

형제의 나라 조선을 위하여 앞으로!

여러겹의 철조망들을 극복하고 고지로 치닫던 전투원들의 공격이 저지되었다. 뒤미처 폭약통을 안고 달려던 폭파수도 적탄에 맞아 쓰러졌다. 시간이 한초한초 흘러갔다. 불붙는 적화염을 깨부수지 않고서는 구분대의 공격이 이루어질수 없었다. 고지 전투임무도 수행할수 없었다.

그 순간 한명의 전투원이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허가봉영웅이었다.

나에게로 포사격을!

피어린 전투끝에 281.1고지에는 무전수우수참령사 한사람만 남게되었다. 그는 린대장에게 자기의 요구대로 포를 쓰아 줄것을 제기하였다.

린대장은 끝까지 고지를 지키려는 그의 비장한 결심을 동의하였다.

우수참령사의 지휘에 따라 린대의 포가 고지로 사격을 개시하였다.

얼마후 수화기에서는 요란한 폭음이 들려왔다. 잠시후 우수참령사는 가쁜 숨

한놈의 원수라도 더 죽이겠다!

적들의 공격을 격피하고 무명고지를 사수할 임무를 맡은 중국인민지원군의 강세복60포반 반원들은 적들을 향해 연방 명중탄을 퍼부었다. 포신을 식힐 사이도 없었다.

거듭 참패를 당한 적들은 50여대의 비행기의 엄호밑에 따르 40여대를 앞세우고 1개 린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세번째로 기여올랐다. 약박한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지 강세복반장은

《우리는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가치를 든 중화의 아들들이다. 목숨을 바칠지언정 이 성스러운 가치를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으며 그는 전우의 폭약통을 부여잡고 적화염으로 육박하였다. 적탄에 두다리를 상하였으나 그는 주저않지 않았다. 적화염을 쓰아보는 허가봉의 눈에는 사랑과 증오의 빛이 번뜩였다. 원수의 화염을 깨부수는 것이 정은 고향을 지키는

나에게로 포사격을!

리지 못하자 그는 다급히 외쳤다.

《빨리 사격하라. 적들이 나를 포위하였다. 나에게로 맹렬히 사격하라. 나에게로 포사격을!》

자기에게로 포사격을 요구한 우수참령사는 마지막 수류탄을 뽑아들고 적들속으로 뛰어들었다.

부대는 잠시후 고지를 차지하였다.

지원군총사 우수참령사의 무비의 희생성에 의해 고지는 사수될수 있었다.

네번째로 되는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정신을 가다듬은 강세복반장은 마지막으로 남은 반명크수류탄을 뽑아들고 원수의 무리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적땅크가 다가오자 그는 수류탄을 안고 몸을 날렸다. 요란한 폭발소리와 함께 땅크는 박산났다.

이렇게 강세복반장은 정열한 최후를 마쳤다.

본사기자

오고간 혈육의 정

생명을 내대고

봉천군의 어느 한 마을에 갑자기 적기가 달려들었을 때였다. 마을은 삼시에 불길에 휩싸였다.

지원군용사들이 려곡구, 장명동무들은 불속에 마을사람들이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순간도 지체할수 없었다. 그들은 사정에 처한 마을사람들을 한 사람한사람 찾아내어 업어내왔다.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불길속에 있던 마을사람들은 구원되었다.

내 아들

1953년 11월 우리 나라에 온 중국인민지원군의 한 내성이 우리의 판계부문 일군들에게 감격의이라는 자기 아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일군들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분명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천기회렬사의 어머니였다. 그런데 굳이 아들을 찾고있었던것이다.

진화의 그 나날 김의덕동무가 속한 조선인민군 구분대와 천기회렬사가 속한 중국인민지원군 구분대는 한고지에서 함께 싸우고있었다.

어느날 적들이 쓰아대는 포란이 우박처럼 떨어졌다. 위험한 그 순간 김의덕동무는 지원군전우를 자기 몸으로 덮어 구원하고 심한 부상을 당하였다.

의식을 잃은채 안라까지 물고 찾는 인민군전우를 위해 천기회렬사는 적탄속을 꿰고 고지밑에 내려갔다. 그런데 물고 길어오른 그가 희생되었던 것이다. ...

이런 사연으로 하여 천기회렬사의 어머니는 김의덕동무를 내 아들이라 부르며 찾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아들은 조선에서 전사하였으나 아들과 함께 싸운 조선인민군 전사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찾는 중국인 어머니, 그에게 있어서 조선의 아들 김의덕은 살아있는 아들 천기회였다.

소임자를 찾아 수백리

한 농촌마을을 지나던 지원군전사들은 빈집의 외양간에 2미터의 소가 남아있는것을 보게 되었다.

지원군전사들은 자기의 고향 마을사람들을 위하여 심정으로 소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눈속을 헤쳐 마른 풀도 뜯어 소에게 먹였으며 식량으로 가지고다니던 콩도 먹이였다. 한 전사는 자기가 깔고 자려고 마련했던 조질까지 소에게 먹이고 자기는 눈누에서 한밤을 지새웠다.

마침내 그들은 200여리나 에를아 팔네 피난간 소임자를 찾아 소를 돌려주었다.

본사기자

수 기

연 제 나 한 전 호 속 에서

지금도 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전호속에서 어깨걸고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전우들과 찍은 사진을 간수하고 있다. ...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은 전화의 나날로 달려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종 두 나라 혁명선배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전통적인 조종친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우리 부대는 중국인민지원군 부대의의 협동작전으로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렸다. 전투의 나날 우리 인민군과 지원군전사들의 전투적우의는 더욱 뜨거워졌다.

우리 인민군전사들은 지원군전사들을 적극 도와주었고 지원군전사들도 우리를 전우, 형제로 여기고 전투마다에서 희도 생명도 바쳐가며 전투적단결과 우의를 튼튼히 하였다.

역수로 퍼붓는 장마비로 하여 식량을 비롯한 물자들의 보급이 곤장되었을 때 자기들의 식량을 지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아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전우가 아닐수가...》라고 하던 지원군전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전투의 나날 지원군전사들은 조선의 한치방, 한포기, 풀, 한그루 나무도 자기 조국의것처럼 여기고 인민군후방가족을 비롯하여 전선지구 인민들을 돌보아준 것도 도와주었다. 전투를 치른 여가시간이면 우리와 지원군전우들은 서로 오가며 전투성과를 축하해주었고 화선오락도 함께 벌였다. 두 나라의 명절들을 맞을 때면 승리의 긍지드높이 축하무대로 펼쳐놓았다. 그때 지원군전사들은 팔을 힘차게 저으며 불멸의 혁명승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도 불렀다. 그 노래소리는 지금도 세월의 언덕을 넘어 나의 귀전에 정령히 들려온다. 지원군전사들은 탁월한 전략술과 전법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였으며 피로써 맺어진 조종친선을 더욱 굳건히 다져갈 자기들의 결의를 더 굳게 하였다.

오늘의 조종친선의 감동깊은 화폭속에서 나는 그날의 중국전우들의 모습을 보고있으며 그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한전호속에 전우로, 형제로 함께 있다는 목소리를.

만경대구역 칠철3동 전선로병 김운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공원을 찾아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공원을 찾아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박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

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영호동지와 박제정 인민무력부 부부장,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소련총대사 판국방무관이 동행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선를 이 감동하게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림상에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

사대표단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원히 조종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글발이 적여져있었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

을 바치셨으며 조종친선의 강화발전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백웅동지는 방문록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그리겠다는 글을 남겼다.

【조선중앙통신】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회창군에 있는 모안영동지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묘에 화환 진정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박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24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모안영동지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회창진에는 박제정 인민무력부부장,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과 중국인민해방군 전공군사령관 왕해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부부장 리우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성원들,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소련총대사판 국방무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안영동지의 묘와 려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모안영동지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묘에 각각 진정되었다.

이이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판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모안영동

지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묘에 각각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땀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은 영원불멸하리라》 등의 글발이 적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용감히 싸운 모안영동지와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한 다음 려사묘들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중조친선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기를 축원한다

주영 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강조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동지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뜻깊은 시기에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인솔하고 조선을 방문한데 대하여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환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중국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친선의 정을 깊이 느끼었다.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림방이다.

중조 친선은 두 나라로세대명도자들에게서 마련하여 추진 공동의 재부이다.

올해에 두 나라사이의 교류와 협조가 더욱 확대발전되기를 바란다.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시어 호금도총서기동지와 공동의 판시조가 되는 문제를 함께 다해 갔이있는 의견을 나누시고 중요한 합의를 이룩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공고발전시켜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것은 우리의 영예롭고도 신성한 사명이다.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중조친선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체류기간 우리는 우의담을 참관하였다.

참관을 통하여 우리는 전투적우의로 두터워진 중조친선의 력사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함께

싸워이긴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공적은 길이 빛나고있다.

올해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는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의 뜻을 계승하여야 한다.

중조친선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기를 축원한다.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뜻깊게 맞이하리라고 확신한다.

본사기자



못 잊을 동북땅아

회고적으로 (♩=168)

작사, 작곡 황진영

1. 만 단사 연 품 고 있는 동 북의 광 야
 피 어 린 항 일 대 전 흘 러 간 력 사 의 땅
 김 일 성 장 군 님 울 린 총 성 지 금 도 들 려 오 는
 동 북 산 야 높 고 험 한 준 - 령 들 - 이 여
 잊 지 못 할 전 우 들 과 정 - 든 고 장 이 여
 아 - 수 령 님 불 멸 의 자 육 어 린
 조 중 인 민 추 억 길 은 못 잊 을 동 북 땅 아

2. 두 나라 아들딸들 무장을 들고
 공동의 원수들을 물리친 력사의 땅
 빼앗긴 조국을 찾는 길이 얼마나 간고한지
 장백산의 눈보라가 말하여주네
 압록강의 푸른 물이 말하여주네
 (후렴)

3. 항일혁명렬사들의 피가 스민 땅
 위대한 조종천선 꽃피난 력사의 땅
 총대와 피로써 맺은 우정 영원히 변치 말라
 동북전에 목숨바친 그들이 말하네
 동북산야 전구들이 오늘도 말해주네
 (후렴)

평양문화전시관을 참관한 외국인들의 반향

평양문화전시관을 참관한 외국인들은 경이하는 수평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씩씩한 업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미술작품들을 보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오스트리아로조련맹 좌익혁명 전방비서 울리베르 요니스카이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소개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 조선로동당의 창상을 받들고 창조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그분들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력사실천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다.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이 김일성동지께서 밝혀놓으신 길을 계승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고 있다.

몽골 자주적방위를 위한 백두산혁명 다른 울도지부대표단 단장 오. 명호체제는 이렇게 말하였다.

철세위인들께서 집필하신 고전적로작들과 배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칭송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이 서술한 도서들을 보고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나리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김일성동지께서 선군령도로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주시는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사진들앞에서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참관을 통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력사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여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우화동지의 손자 장기는 전시관을 참관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도서와 사진, 미술작품들을 보면서 명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심을 깊이 느낄수 있었다.

《E. C》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쳐왔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로 계국주의자들의 암살행동을 짓부시면서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조선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철세의 위인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만 단사 연 품 고 있는 동 북의 광 야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빛날 업적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피끓는 청춘을 바친 영웅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새긴다. -리수복순천화학공업대학에서- 본사기자 장 청 일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공원을 찾아 외국 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공원을 찾아 24일 사회과학원 부원장 겸 동북아시아연구소 소장인 엘 쉐인 랑을 단장으로 하는 월남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연구소대표단을 비롯

한 외국 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인류의 자주 위업수행과 나라들사이의 친선 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흥모의 마음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 를 드리었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 었다.

[조선중앙통신]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 위원장

조선로동당 대표단을 만났다

말레이시아 수상인 다득 스리 모하마드 나지르 빈 폰 하지 아브를 라자크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 위원장이 21일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 통일당대회에 참가하고있는 박근광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말레이시아 전

국말라이통일당 위원장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표단장인 장 청 일 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또다시 뉘이 추대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열렬한 축하와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 릴것을 대표단장에게 부탁하였

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말

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대회에 참가한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조선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잘 알고있다고 말하였다.

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조선의 당과 인민이 앞으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 라는것을 확신한다고 그는 강조 하였다.

본사기자

월남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연구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10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과학원 부원장 겸 동북아시아연구소 소장인 엘 쉐인 랑을 단장으로 하는 월남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연구소대표단이 24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

과학기술을 알고 자기 힘을 믿을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평양에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공원과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 니다.》

지금 우리 평양건설공작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평양시 10만세대 살림 집건설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며 더욱 분발하여 일하고있다. 10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 들을 일떠세우는 데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전개한 당 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총 공격전에 펼쳐나선 공장일 군들과 종업원들의 정신력은 전례없이 앙양되어있다.

우리 공장은 인민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당의 은정속에 일해왔다. 이러한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일군들과 로동 자들에게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과학기술을 알고 그에 의거하여 생산을 더욱더 활성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의 대고조는 21세기 정보산업시대의 대고조이며 새로운 대고조시대 요구 하는 자력경쟁의 혁명정신 은 과학기술의 통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리려는 비약 과 혁신의 정신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공장에서는 건설에 필요 한 자재가 아무리 반대하도 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우리 의 힘과 기술, 우리들의 자력 으로 보장할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공장종업원들의 정 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켰다.

우선 기술력량을 충분히 꾸리는데 신차적관심을 돌

리고 이에 대한 작전과 물질 기술적보장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현 장기술자들의 책임성을 높 이는 문제에 힘을 넣고 모 든 생산자대중이 자기의 기 대에 정통하도록 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공장의 어디서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이전에는 기술자들 에게만 의거하던 복잡한 수 리도 로동자들자체의 힘으 로 척척 해내게 되었으며 설비의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나날에 백색도 가 높은 힘을 믿고 생산하게 되었을뿐만아니라 국내 원료로 만든 유약에 의한 위생자기생산에서 뚜렷한 질적변화를 가져오게 되었 다. 특히 라일생산에서 현 저한 진전을 이룩하게 되었 으며 연료소비기준을 줄임 으로서 생산에서 큰 실리를 얻게 되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우리 의 원료를 가지고 더 많은 건재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 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경험 도 쌓고 자기 힘을 믿고 이 악하게 노력하면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 수 있다는 신심도 더 굳게 가지게 되었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세 차게 일으키자라는 나날에 우리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볼 때, 자기 힘을 믿고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새로운 혁신과 기술을 창조 할수 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거든 성과보다 할 일이 더 많은 우리들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계속 쫓아내며 더 하고 더욱 발달하여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공장이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주력전선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었다.

우리들은 온 나라 곳곳에 만수대거리, 마진호백과 같은 강성대국거리, 강성대국 건축물들을 보란듯이 일떠 세우고 어디에나 사회주의 신성마음들이 펼쳐지게 하자 는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여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살림집건설에서 필요한 자재보장에 모든 힘을 다해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선군시대의 평양변 영기를 펼쳐놓는데 적극 이 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 의한다.

평양김재공장 지배인 고 영 호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 기풍입니다.》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당 창건 65돐을 뜻깊게 경축한 승리의 궁지와 자랑을 안고 당보지상연단에 나서니 비상한 각오와 드 높은 열의가 가슴은 세차 게 끓는다.

우리 계남목장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격정을 금할수 없다. 한해동안에 두차례나 우리 목장을 찾은 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능력확장공사를 통이 크고 대담하게 벌릴데 대한 문제, 축산에서 당의 종자혁명방침 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 으로 하며 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먹이거지를 튼튼 히 꾸릴데 대한 문제 등 목 장을 전망성있게 꾸리며 축 산물생산량을 높이는데서 지침 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한시바삐 인민들 에게 가닿도록 하기 위해 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도당위원회 지도밑에 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시 담말씀을 결사관철할 혁명적 열정을 안고 성과로 투쟁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이룩 하였다.

수천마리규모의 염소우리 확장, 수천마리의 돼지와 토끼사육, 수천마리의 우양 종집중성 확보, 수천정보의 자연분만조성, 자연호르몬 물공급체계완성, 수많은 살 림집건설,

특히 목장에서는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 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 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생산물 보를 높이 세우고 경제조직 사업과 과학기술적인 생산 지위를 결집시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말린물생산과 품질 임, 염색업을 넉넉히 장만 하여 불리한 자연기후조건

에서도 새끼염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젖생산 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 였다. 결과 축산제1분장과 제2분장, 제3분장에서 조 선로동당대표자회원으로 년 간 셋생산계획을 넘쳐 수행 하였으며 집집승사양관리와 새끼생산, 고기생산에서 선 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함 으로서 연간 축산물생산계획 을 8월에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 10월의 대축전 장에 몇몇차례 들어섰다.

이룩한 성과에 비례할 때 이지도 해야 할 일이 많은 우리들이다.

우리 인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는데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김철의 호소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으로 화답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더 좋 고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 을 실천으로 받들며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인민 들의 웃음이 더 활짝 꽃피나 게 하는데 이바지하겠다.

계남목장 지배인 리수영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여 인민생활향상의 총공격전 에 나선 우리 공장일군들 과 종업원들의 기세는 대단하다.

우리 사리원방직공장 2정방직장 정방공인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오명춘동무는 9월 3일 까지 3년분생산과제를 완수하였으며 6직포직장 정 옥일동무는 비롯한 5명의 직포공들은 8월 말까지 2년분생산과제를 완수한 후 기세로 계속 돌진하고있다. 자기의 소 박한 편지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에 오명춘동무는 연말까지 4년분생산과제를 앞당 겨 완수할것을 결의해나 갔다.

그의 결의에 호응하여 이미 년간계획을 완수한 많은 로동자들이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혁신 의 길로 총달음치고있다.

공장에서는 양양된 대 중의 열의에 맞게 사업을 치밀하고 작정하고 설계 하며 결매있게 내밀어 대 중을 더 큰 혁신과 위훈에 로 떠밀어주며 그들이 대 고 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 해나가도록 모든 힘을 다하

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일터 마다에서 다기대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고 오고있다.

그날계획은 그날로 이 김철의 수령명령으로서 계 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펼쳐지고있는 가운데 만가, 만부하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져지고 있다.

그 나날에 우리들은 일 군들이 천리마대고조의 기의 일군들처럼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경제 작전과 조직, 지휘를 혁 명적으로 해나감에 이 신 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퍼줄 때 새 기적, 새 위훈이 창조 된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룩한 성과 에 자만함이 없이 인민 생활향상의 해인 올해 를 높은 실적으로 빛내 이기 위하여 조선로동 당창건 65돐을 대등 치축전으로 장식한 그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것이다.

사리원방직공장 생산부기장 리 옥 회

우리 나라 정부와 벨라리아정부사이의

2010-2013년도 과학, 교육 및 문화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계획서 조인

【평양 10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벨라리아공화국 정부사이의 2010-2013년도 과학, 교육 및 문화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계획서 조인되었다.

조선주 벨라리아주에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밀렌 류프까노브 벨라리아외무성 부상이 각각 계획서에 서주하였다.

해국의 마음

연안군 소아리에 살고있는 리병재로인은 농장의 수리분조에서 일하다가 년로보장을 받은지 오래다. 그러나 그가 농사일이 소문없이 비추기는 진정은 농장의 어느 작업단, 어느 일터에나 깃들여있다. 땅을 밟는 길에 나이를 가리겠는가고 하면서 그

는 농장에서 안고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앞장서군 하며 군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찾아가 농기계가들이 원만히 돌아갈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이런 그를 사람들은 존경하며 따르고있다.

로동통신원 박 창 규

대화분위기를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북남사이 대화와 접촉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3차에 걸치는 북남직접실무접촉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며 상봉상화문제를 포함한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사회담을 10월 26일과 27일 개성에서 가결에 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우리측은 또한 직접실무접촉에서 합의된대 따라 금강산지구 남북부동산문제, 관광재개문제와 관련한 북남당국간 실무회담을 가결짓을 남측에 제안하였다. 이것은 현시기 북남사이 애 조성된 업중 한 사태를 타개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실이며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리행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면면을 열어나아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표시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우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 환영하고있어 북남관계가 개선되어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이 열리기를 할것같이 바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북과 남사이 대화는 민족단합을 위한 대화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북과 남에 있어서 모처럼 마련된 지금의 대화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판계개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북남대화는 민족의 운명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데 근본목적에 있다.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린 것처럼 바로 북과 남이 대결과 격전이나 대화와 단합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데 대한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로 부터 출발한것이다.

북남대화가 자기의 근본목적과 사명을 맞게 발전하자면 그것이 민족단합을 위한 대화로,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은 겨레의 지향이고 세기적속원이며 민족적자존실현의 필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을 협의해나가는것으로 북남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것은 더 논할 여지도 없다.

북남대화의 성과여부는 쌍방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는가 하는데 달렸다. 북남대화는 어디까지나 쌍부적인 대화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성 과를 거둘수 없으며 쌍방이 공동으로 진지하게 노력할 때에만 훌륭한 결실을 가져올수 있다.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대화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화는 동종사이에 반목과 불신만을 심화시키며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지속시켜는데 악용되고 온 겨레에게 실망만을 안겨줄뿐이다.

북남대화에서 전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자세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서 출발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서 출발한 북남대화들이 어떤 훌륭한 결실을 가져올수 있는가 하는것은 이미 6. 15 통일유언과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지속시켜는데 악용되고 온 겨레에게 실망만을 안겨줄뿐이다.

북남대화에서 전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자세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서 출발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서 출발한 북남대화들이 어떤 훌륭한 결실을 가져올수 있는가 하는것은 이미 6. 15 통일유언과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지속시켜는데 악용되고 온 겨레에게 실망만을 안겨줄뿐이다.

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면서 대화를 체제대결을 위한 불순한 목적실현의 수단으로 리용하려 한다면 그러한 대화는 열백번 한다 해도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현 《정권》의 출현후 간신히 열린 북남대화들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다 파란만장이 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력사적인 10. 4 선언의 채택이후 활기있게 진행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일시에 중단된것도, 지난해에 우리의 아량과 성의를 성사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후 대화와 협력의 앞길에 차단봉이 내리워진것도 다름아닌 남조선보수당당이 집요하게 동족대결정책을 추구하였기때문이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구태의연한 동족대결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들은 북남사이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를 여전히 쟁점이 될것이라는것을 의식할바 없다. 북남대화를 발전시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방면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현시기 북남대화는 온 겨레에게 희망과 훌륭한 결실을 안겨주는 대화로 되어가야 할것이다. 북남대화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방향이 되지만 남조선당국이 대결의 립장으로 부터 화해와 단합, 통일의 립장으로 돌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정책전환을 하여 동족과 손을 잡고 자주적민족운동개척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는 립장에 서야 한다.

북남대화는 력사적인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에 기초하여 민족의 단합과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북남선언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6. 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 선언이 가리키는대로만 하면 북남관계에서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에 인위적인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며 대화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외교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통일애국인사들의 배양과 접촉을 차단하면서 대결을 위한 대화를 추구한다면 언제 가도 북남관계는 개선될수 없다.

북과 남이 다같이 긴장완화와 평화를 지향하고 민족적단합을 도모하려는 공통된 립장과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임한다면 북남대화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릴것이다. 이것은 의심할바 없다. 북남대화를 발전시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방면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현시기 북남대화는 온 겨레에게 희망과 훌륭한 결실을 안겨주는 대화로 되어가야 할것이다. 북남대화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방향이 되지만 남조선당국이 대결의 립장으로 부터 화해와 단합, 통일의 립장으로 돌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정책전환을 하여 동족과 손을 잡고 자주적민족운동개척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는 립장에 서야 한다.

통일회방군의 생때질

얼마전 피뢰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어느 한 강연회에서 북남사이 대화 가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것보다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북남관계가 《백문제해》가 없는 《남북관계의 안정적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해쳐왔다.

아름다운 《대북정책》의 고안자이고 흑백진도를 밝히듯 하는 정치사기꾼의 입에서 이따위 반통일너드러의 다른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역도의 말발은 핵문제를 코에 걸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한사코 거부하려는 보수매당의 속신을 다시금 내뱉는것으로서 북남관계개신과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과묵치한 우롱이며 악랄한 도전이다.

현인택이 말끝마다 핵문제해결을 북남관계개신의 전제조건으로 들고나오고있는데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누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핵문제와 북남관계문제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보수매당이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상원의 핵전쟁도발책동에 적극 추종해나가지 않았다면 핵문제는 생기기조차 않았을것이다. 현인택이 마치도 핵문제해결에 판심이라도 있는듯이 생색을 내는데 말은 리치에 맞게 해야 한다. 우리는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6차외장대화에 준비되어있다는것을 이미 천명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의 표시이다.

여기에 남조선당국자들은 어떻게 대하고있는가. 이런 저런 전제조건을 내대며 그 해방을 늘고있다. 그런 주제에 현인택이 핵문제를 들고 나오는것은 의세와 공포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저들의 불순한 대결정신을 가리우고 북남관계개신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쳐우려는 간교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북남관계개신을 주도도 바라지 않고 오직 대결만을 추구하는 역도의 반통일적립장이 여기서 다시금 명백히 립

증되고있다.

역도가 핵문제해결이 없는 《북남관계의 안정적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공언한것도 악랄한 대결광신자, 파멸치한 대화괴파자만이 할수 있는 생때질이다.

사실 6. 15 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관계는 부단히 발전하여왔다. 그런데 현 《정권》이 들어서 이후 북남관계는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던 끝에 오늘날은 전진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 현인택이 집권하자마자 《비핵, 개방, 3000》이니,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이니, 《금반사태》니 하면서 사상 최악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악랄하게 강행하면서 현인택과 같은 대결미치광이들이 무분별한 당중에 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보수매당은 과묵치한 북남관계개신할것을 요구하는 내외의 강력한 주장에 직면하여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워 전진공공하고있다. 더우기 우리의 대화제에 짐장을 빼고있는 보수매당은 어떻게 하나 그것을 모면해보려고 뿔뿔해하고있다.

이번에 현인택이 북남대화제개의 시점보다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는니, 북남관계의 《안정적발전이 불가능》하다는것이니 뭐니 하며 황실수설한것도 결국은 저들에게로 쏠리는 민심의 논승을 따들리고 대화거부의 구실을 마련하자는것이다.

금강산관광개발을 위한 실무회담이 지연되고 있는것도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북남관계가 진실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정책이 철회되어야 하며 그 악랄한 고안자, 집행자인 현인택과 같은 대결분자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현인택은 가소롭게 그 누구에게 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걸걸을 스스로 선택하는것이 좋다.

북남관계의 길목에 들고있어 한사코 해방질만 하는 이런 대결광이 있는 한 북남관계의 과공상태는 언제 가도 풀리지 못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쪽에 즈음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지지하며 나이지리아주체 사상언론 전국위원회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980년 10월 10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면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선의 통일을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연방제방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나이지리아에 맞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북과 남이 다같이 접수할수 있는 공평정당한 방안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3대원칙, 집단적민주주의3대원칙, 함께 조국통일3대원칙을 이루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선의 자주적통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강령이며 기치이다.

오늘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진지한 지지와 환영하며 이 방안이 실현될 때까지 조선인민과 함께 투쟁할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쪽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6. 15 공동선언을 통일 의 리정표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에 시급히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6. 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투쟁할것을 재확인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쪽에 즈음하여 로씨야, 프랑스에서 기념보도를 하였다.

15일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기어 이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민족의 힘을 합쳐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연방제방식의 통일통일국가를 창립할것을 기본책으로 하는 력사적인 6. 15 북남공동선언을, 2007년에는 그 실천강령인 10. 4 선언을 채택 발표하도록 하시었다.

결과 조선에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나라의 통일을 조속히 실현할수 있는 강령과 기초가 확고히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금 조선의 통일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남조선당국자 리명박은 미국 의 추종하여 6. 15 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지금까지 이룩된 모든 긍정적인 통일성취를 뒤집어엎는 망동을 벌이고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전제 조선인민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6. 15 공동선언을 통일 의 리정표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에 시급히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6. 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투쟁할것을 재확인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쪽에 즈음하여 로씨야, 프랑스에서 기념보도를 하였다.

15일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기어 이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민족의 힘을 합쳐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연방제방식의 통일통일국가를 창립할것을 기본책으로 하는 력사적인 6. 15 북남공동선언을, 2007년에는 그 실천강령인 10. 4 선언을 채택 발표하도록 하시었다.

결과 조선에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나라의 통일을 조속히 실현할수 있는 강령과 기초가 확고히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금 조선의 통일은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구태의연한 동족대결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들은 북남사이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를 여전히 쟁점이 될것이라는것을 의식할바 없다. 북남대화를 발전시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방면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현시기 북남대화는 온 겨레에게 희망과 훌륭한 결실을 안겨주는 대화로 되어가야 할것이다. 북남대화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방향이 되지만 남조선당국이 대결의 립장으로 부터 화해와 단합, 통일의 립장으로 돌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정책전환을 하여 동족과 손을 잡고 자주적민족운동개척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는 립장에 서야 한다.

침미에 속화를 심화시킨 매국협상

말려진바와 같이 최근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제42차 《년례안보협의회의》라는것이 벌어졌다.

이번 《협의회》과정을 놓고 남조선의 경우보수매당은 남조선미국 《동맹》을 새로운 의정할수 있게 하였다. 《년미 워싱턴》이 미국과 저들의 동맹관계에서 결정적이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것처럼 떠들고있고있다.

그러나 이번 《년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하여 남조선의 보수매당은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저들의 처지를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이번 안보협의회의는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의》라는것을 허나를 주고 열백을 빼앗아내려는 유희한 상전과 내외와 민족을 팔아치우려 어떻게 하나 상전의 바지 주머니에 매달려보려는 가련한 주머니에 비친 굴욕적이며 매국적인 협상이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남조선의 반역적인 군부세력은 미국 대조선적합법적인 하수인으로 더욱더 철저히 전락하였다. 미국이 저들의 《확장적경제공약》의 실행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새로 제정하기로 한 《확장적경제정책위원회》가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미전에 《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여러가지 경제공격적인 작전계획들을 작성한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호전정파들은 유희에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친 《동맹》을 체결할수 있게 하였다. 《년미 워싱턴》이 미국과 저들의 동맹관계에서 결정적이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것처럼 떠들고있고있다.

그러나 이번 《년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하여 남조선의 보수매당은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저들의 처지를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이번 안보협의회의는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의》라는것을 허나를 주고 열백을 빼앗아내려는 유희한 상전과 내외와 민족을 팔아치우려 어떻게 하나 상전의 바지 주머니에 매달려보려는 가련한 주머니에 비친 굴욕적이며 매국적인 협상이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남조선의 반역적인 군부세력은 미국 대조선적합법적인 하수인으로 더욱더 철저히 전락하였다. 미국이 저들의 《확장적경제공약》의 실행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새로 제정하기로 한 《확장적경제정책위원회》가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미전에 《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여러가지 경제공격적인 작전계획들을 작성한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호전정파들은 유희에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친 《동맹》을 체결할수 있게 하였다. 《년미 워싱턴》이 미국과 저들의 동맹관계에서 결정적이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것처럼 떠들고있고있다.

그러나 이번 《년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하여 남조선의 보수매당은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저들의 처지를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이번 안보협의회의는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의》라는것을 허나를 주고 열백을 빼앗아내려는 유희한 상전과 내외와 민족을 팔아치우려 어떻게 하나 상전의 바지 주머니에 매달려보려는 가련한 주머니에 비친 굴욕적이며 매국적인 협상이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남조선의 반역적인 군부세력은 미국 대조선적합법적인 하수인으로 더욱더 철저히 전락하였다. 미국이 저들의 《확장적경제공약》의 실행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새로 제정하기로 한 《확장적경제정책위원회》가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미전에 《진시작전통제권

남조선군부가 날이 갈수록 저들의 호전적정세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북침전쟁소동에 미쳐달려고있다.

얼마전 국방부는 올해보다 5. 8% 증가한 다음에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조선에서 《국방예산》이 해마다 체계적으로 증가되어온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국방예산》 증액늘음에는 레사롭지 않은것이 있다.

지금 피뢰군부제기들은 《천안》호사건이후 그 누구의 《침투, 국지도발》과 《비대정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들면서 예산증액을 합리화해보려고 하고있다. 한마디로 저들이 그 누구의 《침투》에 맞설 능력이 부족하기때문에 《국방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켤미이다. 《천안》호사건이 있지도 않는 《북위협》을 가장ings신화하여 무력증강 등 북침전쟁도발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트러사건이 있다는것은 이미 드러남대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들며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려 하는것은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저들 마음먹은대로 무력증강계획을 내밀어 북침전쟁준비를 완비할 쉼계의 발로이다. 그것은 다음해 《국방예산

안》에 반영된 무력증강계획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에 의하면 호전정파들은 잠수함적능력보강을 구실로 함선들에게 어뢰유향대함계와 신형 탐지레이더를 정비하고 조선서 해에서 원지탐지용음향감응신호장치를 설치하려 하고있다. 한편 통기계를 감청 및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자전쟁비와 대포방탄레이더 및 방공공레이더기계를 공격형적승기와 최신히 개발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 코크》의 도입 등에도 막대한 예산의 자금을 쏟아부으려 하고있다. 이는것이나 다 북침전쟁공격을 위한것이다.

얼마전 피뢰군부제기들은 《천안》호사건이후 그 누구의 《침투, 국지도발》과 《비대정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들면서 예산증액을 합리화해보려고 하고있다. 한마디로 저들이 그 누구의 《침투》에 맞설 능력이 부족하기때문에 《국방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켤미이다. 《천안》호사건이 있지도 않는 《북위협》을 가장ings신화하여 무력증강 등 북침전쟁도발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트러사건이 있다는것은 이미 드러남대로 드러났다.

말로 대화와 긴장완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북침야망실현에 광분하는 위험한 호전세력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북남관계가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는 속에서 피뢰호전정파들이 전쟁준비소동에 그처럼 막대한 예산의 돈을 쏟아부으려 하는것은 실로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남조선에서 제단식으로 확대되는 무력증강소동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민족의 화해와 통일지향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군부호전정파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그대로 둔다면 온 겨레에게 돌이킬수 없는 전쟁의 재난이 차레질수 있다.

사태는 남조선호전정파들이 모략적인 함선잠수정사정을 계기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의 반민족적외약에 대해 지금도 자책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북남관계개신의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으면서 어떻게 하나 대결정책을 유지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려고 피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피뢰호전정파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우리를 절대로 놀래킬수 없다. 전쟁열에 들뜬 호전정파들은 오직 선충분대의 불벼락으로 다스려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칙같은 의지이다. 우리의 선충분대는 평화괴파자, 전쟁도발자들에게 추호의 자비도 모른다. 만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결망한다면 과묵치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남조선의 인터넷방송 청장부보로 출마한 우리거기하나위 기 출신운동본부 대표 김중훈에 대하여 비판한 수사놀음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피뢰호전정파들은 《한나라》의 색갈론공세에 맞추어 지난 6. 2 지방자치제선거간 《보안법》위반혐의로 민주로동당 동구구청장부보로 출마한 우리거기하나위 기 출신운동본부 대표 김중훈에 대하여 비판한 수사놀음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피뢰호전정파들은 《한나라》의 색갈론공세에 맞추어 지난 6. 2 지방자치제선거간 《보안법》위반혐의로 민주로동당 동구구청장부보로 출마한 우리거기하나위 기 출신운동본부 대표 김중훈에 대하여 비판한 수사놀음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세파국을 몰아오는 대결소동

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을 보았다.

남조선집권세력의 망동은 체제대결야망의 뚜렷한 발로로서 우리에게 대한 엄청난 도전이며 대화와 단합, 평화는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비행행위이다.

북로련바와 같이 지난 8월 15일 남조선집권자 그 무은 《통일세》라는데서 들고나오는 《통일세》란 한마디로 허황하기 그지없는 《공공면사방안》과 《세계통일》을 전제로 《통일비용》을 세움으로 결어들이자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에서 엄청난 현세를 몰아내어 북침야망실현에 랑친해결을 위한 대결소, 전쟁선 《통일세》제안이 나오자바람으로 남조선 각계와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배격에 부딪혔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얼마전 《한나라당》의 《두뇌전》이라고 하는 의도연구조가 여론조사를 진행한데 의해서라도 운동당자의 대부분이 《통일세》를 반대하고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실현해보려는 범죄적야망만이 풀

그런데 이러한 수사놀음은 선거가 끝나자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한다. 이와 관련한 야당소속 《국회》의 판관들은 울신지방경찰이 3년전 사실을 결코지며 지방자치제선거를 계기로 조사를 벌인것은 각계의 비관을 면할수 없다고 하면서 당국이 사건의 진상과 배후에 대해 철저히 방화조치를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출생률 급격히 저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것이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남조선녀성이 낳는 아이의 수가 평균 1. 24명

《KBS》방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것이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남조선녀성이 낳는 아이의 수가 평균 1. 24명

남조선에서 출생률 급격히 저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것이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남조선녀성이 낳는 아이의 수가 평균 1. 24명

남조선에서 출생률 급격히 저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것이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남조선녀성이 낳는 아이의 수가 평균 1. 24명

《북위협》을 가장ings신화하여 무력증강 등 북침전쟁도발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트러사건이 있다는것은 이미 드러남대로 드러났다.

《천안》호사건이 있지도 않는 《북위협》을 가장ings신화하여 무력증강 등 북침전쟁도발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트러사건이 있다는것은 이미 드러남대로 드러났다.

《천안》호사건이 있지도 않는 《북위협》을 가장ings신화하여 무력증강 등 북침전쟁도발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트러사건이 있다는것은 이미 드러남대로 드러났다.

《천안》호사건이 있지도 않는 《북위협》을 가장ings신화하여 무력증강 등 북침전쟁도발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트러사건이 있다는것은 이미 드러남대로 드러났다.

《천안》호사건이 있지도 않는 《북위협》을 가장ings신화하여 무력증강 등 북침전쟁도발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트러사건이 있다는것은 이미 드러남대로 드러났다.

《천안》호사건이 있지도 않는 《북위협》을 가장ings신화하여 무력증강 등 북침전쟁도발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트러사건이 있다는것은 이미 드러남대로 드러났다.

《천안》호사건이 있지도 않는 《북위협》을 가장ings신화하여 무력증강 등 북침전쟁도발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트러사건이 있다는것은 이미 드러남대로 드러났다.

망의 령도밑에 승리만을 떨치는 조선인민

부나비신세를 면치 못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나호드카, 노르웨이 오슬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7일과 8일에 경축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사건설명도업적들을 보여주는 사진들,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성과를 소개하는 사진들이 집회장들에 전시되어있었다.

집회에는 로씨야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방위원회, 노르웨이공산당, 오스트리아공산당, 오스트리아인민공화국공산당, 오스트리아 원조협력회, 오스트리아 원조협력회 등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 동양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로씨야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방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다.

강철의 당, 조직력있고 규율있는 불멸의 당으로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고있는 조선로동당은 1945년 10월 10일에 창

건되었지만 그 력사적부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명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두셨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 창건방침에 따라 조선의 혁명가들은 항일혁명투쟁속에서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적하였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온 조직자, 지도자이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듯이 잘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모든 사업의 첫차리에 놓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있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인민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노르웨이공산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조선의 현대사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주체형의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인민공화국의 항도적력량으로서 단 한번의 실수나 편향도 없이 언제나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만 이끌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급속한 발전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로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정 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변대성을 표시할것이다.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추진협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선로동당대표회의는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의 위업을 가장 훌륭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기어 이 밀दै세우려는 조선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협회는 두 나라사회의 판매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씨어인스 테크놀러지 엔드 에듀케이션 뉴스》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령도자랑 당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멸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 될수 있었다.

지난 세기 말엽 조선인민은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곤대이 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고는 신군의 원리를 내놓으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어 사회주의를 수호하여왔다. 그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이슈 뉴스 엔드 인포메이션 뷰로》는 김일성, 통일된 조선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신문은 《C. C》와 조선

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인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김일성주석께서 라도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었다.

《C. C》에서 조선사회의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의 뿌리가 내리었다.

조선로동당은 《C. C》가 키워낸 세 세대 청년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었으며 《C.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을 당건설과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C. C》의 전통을 이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민주총동맹 루카스 작도마 에조노가 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창건 65돐을 맞는 조선로동당에 적도기네민주당의 창건자이며 위원장인 오비안 니게마 브라소코와 당지도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65년동안 조선로동당은 새 사회를 건설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적도기네민주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며 조선로동당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것이다.

요즘 일본이 매우 부신스러운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주변정세의 《불안정》과 있을수 있는 사태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는 미명하에 해외침략준비를 더욱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현대적인 무인정찰기구입과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기사용기준완화, 핵의 회고, 핵 미주, 남조선 등이 벌려놓은 《전과안보발기》에 따른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를 파견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것들은 군국주의야망으로부터 출발한 일본반동들의 체질준비완성책동의 일환이다.

일본헌법 제9조는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무력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규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추진하는 미국산 무인정찰기구입과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기사용기준완화책들은 그에 전적으로 부채된다. 미국산 무인정찰기구입정당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비행기는 약 1만 8000m의 상공에서 24~32시간 비행할수 있는 첨단비행기이다. 특히 고성능기체와 레이더를 통하여 지상과 해상을 감시할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이런 무인정찰기를 보유하려는것은 해외침략준비에서 한걸음 크게 내디딘것으로 된다.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무인정찰기구입이 우리 나라와 중국 등 나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하는 군사정보를 얻는데 있다고 떠벌이는것은 그것이 주변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행동에 써먹기 위한것이라는것을 시사하고있다.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기사용기준완화책동 역시 그렇다. 일본은 법적으로 자기 나라밖에 서 총포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어있다. 해외에 파견되는 일본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하면 《자위대》는 세계 어디에서든 총포성을 울릴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침략적군사행동을 의미한다. 일본은 《국제평화유지》의 구실밑에 해외에 파견하는 《자위대》에 더 많은 군사행동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체질의 길을 더 넓혀주고 있다.

이런에 일본반동들이 미국, 남조선 등이 벌려놓은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의 전투함정들을 참가시킨것만 놓고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체질준비에 광분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일본은 이 연습에 무력을 파견한 몇개 안되는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참가한 《자위대》 전투함정들은 그 무슨 《추적, 수색》의 미명하에 전쟁방비를 부러내 놓았다.

국제법상 모든 나라들은 항해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그 누구도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들의 항행을 단속통제하며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 공해상을 항행하는 배들을 도중에서 멈춰세우고 물리적힘을 행사하는것은 엄중한 국제법위반이며 용납될수 없는 자주권침해행위로 된다. 일본이 이것을 모를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 나라를 겨냥한 이른바 《전과안보발기》에 따른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함정들을 투입하여 전쟁방비를 부른것은 명백히 반공화국군사적도발로 된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야망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올해가 개구리로 되면 올챙이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기만하면 되지만 군사적힘을 키운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야망에 환장하여 물인지불인지 모르고 헤엄치고있다. 그들의 첫번째 과녁은 바로 우리 나라이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허구적인 《군사적위협》에 떠들면서 각종 전쟁범죄자과 미국, 남조선과의 군사실체화실현행동에 적극 달라붙으며 우리를 겨냥한 일미 또는 다국적합동군사연습에 거침없이 뛰어드는것은 그에 따르겠다.

일본은 가장스러운 군국주의이발을 드러내놓고 사납게 으르렁거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독도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주변나라들의 영토분쟁을 조장격화시키며 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시키는것은 체질의 불질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일본반동들은 그것을 내다보고 《유사사태》, 《유연평화유지활동》 강화의 미명하에 무력충격을 다그치며 《자위대》의 해외군사적전의 폭을 계속 확대하고있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과거 일제가 그 꼴이 되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폐망의 교훈을 잊고 제질에 들떠 계속 해외군사적전의 길로 나간다면 참수니비잔센을 면치 못할것이다.

백 문 규

천진시는 중국 화북정권 동북부에 위치하고있는 베이징, 상해, 중국과 함께 중국의 4대직할시중의 하나이다.

1만 1000km의 면적에 12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천진시는 화북지방에서 제일 큰 공업도시, 상업중심지인 동시에 골지의 국제항구도시이기도 하다.

60여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천진시에는 명승 고적들이 많고 민족고전예술과 고대건축물 등이 유명하다.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이 풍부한 천진시는 튼튼한 공업기술적토대를 가지고있다.

19세기 초에 지어진 강요하는 외래침략자들의 강도적인 요구에 의해 치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던 천진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비로소 새로운 사회경제발전의 길을 걸을수 있게 되었다.

지난 기간 천진시는 중국의 중요한 공업기지, 상업중심도시로 발전하였다. 천진시의 발전에서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천진시인들은 항을 가지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대외무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로씨야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방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다.

강철의 당, 조직력있고 규율있는 불멸의 당으로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고있는 조선로동당은 1945년 10월 10일에 창

건되었지만 그 력사적부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명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두셨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 창건방침에 따라 조선의 혁명가들은 항일혁명투쟁속에서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적하였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온 조직자, 지도자이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듯이 잘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모든 사업의 첫차리에 놓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있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인민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노르웨이공산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조선의 현대사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주체형의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인민공화국의 항도적력량으로서 단 한번의 실수나 편향도 없이 언제나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만 이끌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급속한 발전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로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정 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변대성을 표시할것이다.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추진협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선로동당대표회의는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의 위업을 가장 훌륭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기어 이 밀दै세우려는 조선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협회는 두 나라사회의 판매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씨어인스 테크놀러지 엔드 에듀케이션 뉴스》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령도자랑 당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멸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 될수 있었다.

지난 세기 말엽 조선인민은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곤대이 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고는 신군의 원리를 내놓으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어 사회주의를 수호하여왔다. 그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이슈 뉴스 엔드 인포메이션 뷰로》는 김일성, 통일된 조선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신문은 《C. C》와 조선

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인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김일성주석께서 라도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었다.

《C. C》에서 조선사회의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의 뿌리가 내리었다.

조선로동당은 《C. C》가 키워낸 세 세대 청년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었으며 《C.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을 당건설과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C. C》의 전통을 이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민주총동맹 루카스 작도마 에조노가 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창건 65돐을 맞는 조선로동당에 적도기네민주당의 창건자이며 위원장인 오비안 니게마 브라소코와 당지도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65년동안 조선로동당은 새 사회를 건설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적도기네민주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며 조선로동당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것이다.

요즘 일본이 매우 부신스러운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주변정세의 《불안정》과 있을수 있는 사태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는 미명하에 해외침략준비를 더욱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현대적인 무인정찰기구입과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기사용기준완화, 핵의 회고, 핵 미주, 남조선 등이 벌려놓은 《전과안보발기》에 따른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를 파견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것들은 군국주의야망으로부터 출발한 일본반동들의 체질준비완성책동의 일환이다.

일본헌법 제9조는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무력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규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추진하는 미국산 무인정찰기구입과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기사용기준완화책들은 그에 전적으로 부채된다. 미국산 무인정찰기구입정당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비행기는 약 1만 8000m의 상공에서 24~32시간 비행할수 있는 첨단비행기이다. 특히 고성능기체와 레이더를 통하여 지상과 해상을 감시할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이런 무인정찰기를 보유하려는것은 해외침략준비에서 한걸음 크게 내디딘것으로 된다.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무인정찰기구입이 우리 나라와 중국 등 나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하는 군사정보를 얻는데 있다고 떠벌이는것은 그것이 주변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행동에 써먹기 위한것이라는것을 시사하고있다.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기사용기준완화책동 역시 그렇다. 일본은 법적으로 자기 나라밖에 서 총포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어있다. 해외에 파견되는 일본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하면 《자위대》는 세계 어디에서든 총포성을 울릴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침략적군사행동을 의미한다. 일본은 《국제평화유지》의 구실밑에 해외에 파견하는 《자위대》에 더 많은 군사행동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체질의 길을 더 넓혀주고 있다.

이런에 일본반동들이 미국, 남조선 등이 벌려놓은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의 전투함정들을 참가시킨것만 놓고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체질준비에 광분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일본은 이 연습에 무력을 파견한 몇개 안되는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참가한 《자위대》 전투함정들은 그 무슨 《추적, 수색》의 미명하에 전쟁방비를 부러내 놓았다.

국제법상 모든 나라들은 항해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그 누구도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들의 항행을 단속통제하며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 공해상을 항행하는 배들을 도중에서 멈춰세우고 물리적힘을 행사하는것은 엄중한 국제법위반이며 용납될수 없는 자주권침해행위로 된다. 일본이 이것을 모를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 나라를 겨냥한 이른바 《전과안보발기》에 따른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함정들을 투입하여 전쟁방비를 부른것은 명백히 반공화국군사적도발로 된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야망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올해가 개구리로 되면 올챙이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기만하면 되지만 군사적힘을 키운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야망에 환장하여 물인지불인지 모르고 헤엄치고있다. 그들의 첫번째 과녁은 바로 우리 나라이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허구적인 《군사적위협》에 떠들면서 각종 전쟁범죄자과 미국, 남조선과의 군사실체화실현행동에 적극 달라붙으며 우리를 겨냥한 일미 또는 다국적합동군사연습에 거침없이 뛰어드는것은 그에 따르겠다.

일본은 가장스러운 군국주의이발을 드러내놓고 사납게 으르렁거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독도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주변나라들의 영토분쟁을 조장격화시키며 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시키는것은 체질의 불질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일본반동들은 그것을 내다보고 《유사사태》, 《유연평화유지활동》 강화의 미명하에 무력충격을 다그치며 《자위대》의 해외군사적전의 폭을 계속 확대하고있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과거 일제가 그 꼴이 되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폐망의 교훈을 잊고 제질에 들떠 계속 해외군사적전의 길로 나간다면 참수니비잔센을 면치 못할것이다.

백 문 규

천진시는 중국 화북정권 동북부에 위치하고있는 베이징, 상해, 중국과 함께 중국의 4대직할시중의 하나이다.

1만 1000km의 면적에 12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천진시는 화북지방에서 제일 큰 공업도시, 상업중심지인 동시에 골지의 국제항구도시이기도 하다.

60여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천진시에는 명승 고적들이 많고 민족고전예술과 고대건축물 등이 유명하다.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이 풍부한 천진시는 튼튼한 공업기술적토대를 가지고있다.

19세기 초에 지어진 강요하는 외래침략자들의 강도적인 요구에 의해 치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던 천진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비로소 새로운 사회경제발전의 길을 걸을수 있게 되었다.

지난 기간 천진시는 중국의 중요한 공업기지, 상업중심도시로 발전하였다. 천진시의 발전에서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천진시인들은 항을 가지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대외무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로씨야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방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다.

강철의 당, 조직력있고 규율있는 불멸의 당으로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고있는 조선로동당은 1945년 10월 10일에 창

건되었지만 그 력사적부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명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두셨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 창건방침에 따라 조선의 혁명가들은 항일혁명투쟁속에서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적하였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온 조직자, 지도자이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듯이 잘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모든 사업의 첫차리에 놓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있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인민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노르웨이공산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조선의 현대사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주체형의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인민공화국의 항도적력량으로서 단 한번의 실수나 편향도 없이 언제나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만 이끌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급속한 발전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로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정 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변대성을 표시할것이다.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추진협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선로동당대표회의는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의 위업을 가장 훌륭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기어 이 밀दै세우려는 조선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협회는 두 나라사회의 판매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씨어인스 테크놀러지 엔드 에듀케이션 뉴스》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령도자랑 당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멸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 될수 있었다.

지난 세기 말엽 조선인민은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곤대이 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고는 신군의 원리를 내놓으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어 사회주의를 수호하여왔다. 그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이슈 뉴스 엔드 인포메이션 뷰로》는 김일성, 통일된 조선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신문은 《C. C》와 조선

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인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김일성주석께서 라도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었다.

《C. C》에서 조선사회의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의 뿌리가 내리었다.

조선로동당은 《C. C》가 키워낸 세 세대 청년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었으며 《C.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을 당건설과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C. C》의 전통을 이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민주총동맹 루카스 작도마 에조노가 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창건 65돐을 맞는 조선로동당에 적도기네민주당의 창건자이며 위원장인 오비안 니게마 브라소코와 당지도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65년동안 조선로동당은 새 사회를 건설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적도기네민주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며 조선로동당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것이다.

요즘 일본이 매우 부신스러운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주변정세의 《불안정》과 있을수 있는 사태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는 미명하에 해외침략준비를 더욱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현대적인 무인정찰기구입과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기사용기준완화, 핵의 회고, 핵 미주, 남조선 등이 벌려놓은 《전과안보발기》에 따른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를 파견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것들은 군국주의야망으로부터 출발한 일본반동들의 체질준비완성책동의 일환이다.

일본헌법 제9조는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무력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규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추진하는 미국산 무인정찰기구입과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기사용기준완화책들은 그에 전적으로 부채된다. 미국산 무인정찰기구입정당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비행기는 약 1만 8000m의 상공에서 24~32시간 비행할수 있는 첨단비행기이다. 특히 고성능기체와 레이더를 통하여 지상과 해상을 감시할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이런 무인정찰기를 보유하려는것은 해외침략준비에서 한걸음 크게 내디딘것으로 된다.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무인정찰기구입이 우리 나라와 중국 등 나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하는 군사정보를 얻는데 있다고 떠벌이는것은 그것이 주변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행동에 써먹기 위한것이라는것을 시사하고있다.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기사용기준완화책동 역시 그렇다. 일본은 법적으로 자기 나라밖에 서 총포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어있다. 해외에 파견되는 일본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하면 《자위대》는 세계 어디에서든 총포성을 울릴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침략적군사행동을 의미한다. 일본은 《국제평화유지》의 구실밑에 해외에 파견하는 《자위대》에 더 많은 군사행동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체질의 길을 더 넓혀주고 있다.

이런에 일본반동들이 미국, 남조선 등이 벌려놓은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의 전투함정들을 참가시킨것만 놓고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체질준비에 광분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일본은 이 연습에 무력을 파견한 몇개 안되는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참가한 《자위대》 전투함정들은 그 무슨 《추적, 수색》의 미명하에 전쟁방비를 부러내 놓았다.

국제법상 모든 나라들은 항해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그 누구도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들의 항행을 단속통제하며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 공해상을 항행하는 배들을 도중에서 멈춰세우고 물리적힘을 행사하는것은 엄중한 국제법위반이며 용납될수 없는 자주권침해행위로 된다. 일본이 이것을 모를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 나라를 겨냥한 이른바 《전과안보발기》에 따른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함정들을 투입하여 전쟁방비를 부른것은 명백히 반공화국군사적도발로 된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야망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올해가 개구리로 되면 올챙이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기만하면 되지만 군사적힘을 키운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야망에 환장하여 물인지불인지 모르고 헤엄치고있다. 그들의 첫번째 과녁은 바로 우리 나라이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허구적인 《군사적위협》에 떠들면서 각종 전쟁범죄자과 미국, 남조선과의 군사실체화실현행동에 적극 달라붙으며 우리를 겨냥한 일미 또는 다국적합동군사연습에 거침없이 뛰어드는것은 그에 따르겠다.

일본은 가장스러운 군국주의이발을 드러내놓고 사납게 으르렁거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독도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주변나라들의 영토분쟁을 조장격화시키며 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시키는것은 체질의 불질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일본반동들은 그것을 내다보고 《유사사태》, 《유연평화유지활동》 강화의 미명하에 무력충격을 다그치며 《자위대》의 해외군사적전의 폭을 계속 확대하고있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과거 일제가 그 꼴이 되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폐망의 교훈을 잊고 제질에 들떠 계속 해외군사적전의 길로 나간다면 참수니비잔센을 면치 못할것이다.

백 문 규

최근 중일관계가 심상치 않게 변해지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중국 각지에서 대규모적인 반일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있다. 사천성, 호북성 등 중국의 여러 지역의 도시들이 한데 일어났던 일사위용의 수백명, 수천명 지어는 수만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중국의 인터넷에는 《일본에서의 반 중국 활동》에 항의하기 위하여 반일시위를 벌릴데 대한 호소문을 련일 게재되었다. 수많은 군중이 이에 호응하여 거리로 뛰쳐나와 《조어도 일본에서는 생각구릴대로 조어도 합》은 중국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거리를 행진하였다. 시위자들은 《일본상품을 배척하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중국에서 반일감정이 격화되는 속에 중일마찰이 더욱 표면화되고있다. 그것은 두 나라사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로씨야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방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다.

강철의 당, 조직력있고 규율있는 불멸의 당으로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고있는 조선로동당은 1945년 10월 10일에 창

건되었지만 그 력사적부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명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두셨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 창건방침에 따라 조선의 혁명가들은 항일혁명투쟁속에서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적하였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온 조직자, 지도자이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듯이 잘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모든 사업의 첫차리에 놓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있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인민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노르웨이공산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조선의 현대사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주체형의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인민공화국의 항도적력량으로서 단 한번의 실수나 편향도 없이 언제나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만 이끌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급속한 발전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로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정 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변대성을 표시할것이다.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추진협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선로동당대표회의는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의 위업을 가장 훌륭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기어 이 밀दै세우려는 조선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협회는 두 나라사회의 판매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씨어인스 테크놀러지 엔드 에듀케이션 뉴스》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령도자랑 당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멸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 될수 있었다.

지난 세기 말엽 조선인민은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곤대이 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고는 신군의 원리를 내놓으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어 사회주의를 수호하여왔다. 그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이슈 뉴스 엔드 인포메이션 뷰로》는 김일성, 통일된 조선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신문은 《C. C》와 조선

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인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김일성주석께서 라도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었다.

《C. C》에서 조선사회의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의 뿌리가 내리었다.

조선로동당은 《C. C》가 키워낸 세 세대 청년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었으며 《C.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을 당건설과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C. C》의 전통을 이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민주총동맹 루카스 작도마 에조노가 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창건 65돐을 맞는 조선로동당에 적도기네민주당의 창건자이며 위원장인 오비안 니게마 브라소코와 당지도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65년동안 조선로동당은 새 사회를 건설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적도기네민주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며 조선로동당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것이다.

요즘 일본이 매우 부신스러운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주변정세의 《불안정》과 있을수 있는 사태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는 미명하에 해외침략준비를 더욱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현대적인 무인정찰기구입과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기사용기준완화, 핵의 회고, 핵 미주, 남조선 등이 벌려놓은 《전과안보발기》에 따른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를 파견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것들은 군국주의야망으로부터 출발한 일본반동들의 체질준비완성책동의 일환이다.

일본헌법 제9조는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무력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규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추진하는 미국산 무인정찰기구입과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기사용기준완화책들은 그에 전적으로 부채된다. 미국산 무인정찰기구입정당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비행기는 약 1만 8000m의 상공에서 24~32시간 비행할수 있는 첨단비행기이다. 특히 고성능기체와 레이더를 통하여 지상과 해상을 감시할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이런 무인정찰기를 보유하려는것은 해외침략준비에서 한걸음 크게 내디딘것으로 된다.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무인정찰기구입이 우리 나라와 중국 등 나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하는 군사정보를 얻는데 있다고 떠벌이는것은 그것이 주변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행동에 써먹기 위한것이라는것을 시사하고있다.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기사용기준완화책동 역시 그렇다. 일본은 법적으로 자기 나라밖에 서 총포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어있다. 해외에 파견되는 일본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하면 《자위대》는 세계 어디에서든 총포성을 울릴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침략적군사행동을 의미한다. 일본은 《국제평화유지》의 구실밑에 해외에 파견하는 《자위대》에 더 많은 군사행동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체질의 길을 더 넓혀주고 있다.

이런에 일본반동들이 미국, 남조선 등이 벌려놓은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의 전투함정들을 참가시킨것만 놓고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체질준비에 광분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일본은 이 연습에 무력을 파견한 몇개 안되는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참가한 《자위대》 전투함정들은 그 무슨 《추적, 수색》의 미명하에 전쟁방비를 부러내 놓았다.

국제법상 모든 나라들은 항해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그 누구도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들의 항행을 단속통제하며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 공해상을 항행하는 배들을 도중에서 멈춰세우고 물리적힘을 행사하는것은 엄중한 국제법위반이며 용납될수 없는 자주권침해행위로 된다. 일본이 이것을 모를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 나라를 겨냥한 이른바 《전과안보발기》에 따른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함정들을 투입하여 전쟁방비를 부른것은 명백히 반공화국군사적도발로 된다.</